

# 우크라, 러 본토 공군기지 공격…“9조어치 폭격기 타격”

위장트럭에 드론 옮겨 인근서 발사  
‘전선서 4,300km’ 깊숙이 타격  
“1년반 걸린 작전”…미 공유 안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2차 직접 협상을 하루 앞둔 1일(현지시간)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에 대한 전례없는 대규모 무인기(드론) 공격을 감행해 큰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 당국자는 이날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지역에 있는 벨라야 기지를 포함한 러시아 본토 공군기지 4곳을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고 폴리티코,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 전략폭격기 40여대, 약 70억 달러(약 9조7천억원)어치를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르쿠츠크는 최전선에서 4,300km 이상 떨어져 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정도로 멀리 떨어진 지역을 드론으로 타격한 것은 전쟁 발발 이후 첫 사례라고 로이터는 해설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창고 모양의 목재 구조물이 탑재된 트럭에 드론을 숨겨 공습 표적인 러시아 공군기지 경계까지 옮겨놓은 뒤 드론을 발사했다고 설명하며 이 구조물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거미집’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은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

으며, 바실 말리우크 SBU 국장이 총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말리우크 국장에게서 작전 성과를 보고 받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온전히 이뤄낸 결과이며 계획에서 실행까지 1년 6개월 하고도 9일이 걸린 작전”이라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그는 “작전 준비에 참여했던 우리 병력은 제 때 러시아 영토에서 철수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작전 계획을 미국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공군기지 5곳에 대한 공격이 있었지만 이르쿠츠크 등 2개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격은 격퇴했다고 밝혔다.

또 소수의 항공기만 피해를 봤고 공격에 가담한 사람 몇명을 검거했다며 우크라이나와는 상반된 주장을 폈다.

앞서 이날 러시아 서부 브란스크주와 쿠르스크주에서는 교량 2개가 잇따라 폭발로 붕괴해 최소 7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들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지역이다.

러시아는 이 공격의 배후를 우크라이나로 의심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나, 우크라이나는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러시아도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드론 472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각지를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2022년 2월 말 전쟁 발발 이래 하루 새 이뤄진 공격으로는 규모가 가장 컸다고 지적했다.

양국의 공방이 격화하면서 지난달 16일 이후 17일 만에 열리는 2차 협상을 두고도 회의적인 관측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2차 협상은 2일 오후 1시(한국 시간 오후 7시)께 튀르키예 이스탄불 츠라안궁전에서 열린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루스뎀 우메로우 국방장관이 대표단을 이끌 것이라고 밝히며 러시아 제안 나흘 만에 참석을 공식화했다.

블라디미르 메닌스키 크렘린궁 보좌관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은 이날 오후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협상을 위해 작성한 ‘로드맵’에서 최소 30일간의 무조건적인 휴전을 전제 조건으로 명시했다.

장기 휴전을 시작으로 모든 전쟁포로의 교환, 러시아가 강제 이송한 아동 송환 등 신뢰구축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정상회담을 통해 최종적인 평화 합의를 타결하자는 구상이다.

러시아에도 사전 전달된 이 로드맵 문건에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중립을 강요하지 않고 크림반도를 포함해 2014년 2월 이후 러시아가 확보한 영토는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요구도 포함됐다.

대부분 우크라이나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러시아의 요구와 간극이 크다.

러시아는 그간 우크라이나의 중립, 비동맹, 비핵 지위를 유지한다는 약속을 되살리고 이를 우크라이나 헌법에 포함하라고 주장해왔다. 양국은 첫 협상 때도 1천명씩 포로 교환에 합의했을 뿐 핵심 쟁점엔 이견만 드러냈다.



우크라 보안국이 공개한 드론 실은 위장트럭 내부.

연합뉴스

## 미 재무 “미국 디폴트 결코 없을 것”…월가 달래기

“트럼프, 시진핑과 곧 통화  
무역합의 위반 해결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무역 문제에 대해 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이 밝혔다.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배센트 재무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CBS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중국의 무역 합의 위반에 대해 “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이게 해결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두 정상 간 통화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 “난 우리가 매우 곧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중국이 제네바에서 체결된 미중 무역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합의는 지난 5월 10~11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의에서 도출된 것으로 당시 양국은 90일간 서로 관세를 대폭 낮추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비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배센트 장관은 중국이 당시 합의와 달리 핵심 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은 우리와 합의할 당시 반출하기로 동의한 제품 일부를 보류하고 있다. 중국 시

스템상의 작은 문제일 수도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겠다. 대통령이 시 주석과 통화한 다음에 보자”라고 말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A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시 주석과 무역 협상에 관한 대화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구체적인 날짜를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제네바 합의에 대해 대화할 것이라고 (양국 간에) 논의가 돼왔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사법부가 상호관세에 최종적으로 제동을 걸 경우에 대해 “우리가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추진할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이, 가자 배급소 군중에 발포…최소 30명 사망”

새벽부터 주변 수천명 몰려

이스라엘과 미국이 주도하는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의 가자지구 구호품 배급소에서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최소 30명이 사망하고 100명 넘게 다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랍권 알자지라 방송은 이날 새벽 GHF가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서 운영하는 구호품 배급소 인근에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현지 주민 최소 39명이 숨지고 220명 넘게 다쳤다고 팔레스타인의 보건의료 비영리단체 PMRS를 인용해 보도했다.

팔레스타인 와파(WAFA) 통신은 30명 넘게 목숨을 잃고 115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AFP 통신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민방위대를 인용해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12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인명피해 수는 매체에 따라 다르지만 구호품을 받으러 온 비무장 민간인 상당수가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사상한 것으로 보인다.

가자지구 라파 현지의 한 언론인은 BBC에 가자지구 주민 수천 명이 배급소 인근에 모여들자 이스라엘 탱크가 나타나 포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호대원들이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지역에 접근할 수가 없어 주민들이 수레로 부상자



지난달 29일(현지시간) GHF 배급소에서 구호품 받아 가는 가자지구 주민들.

연합뉴스

를 날려야 했다고 말했다.

사망자와 부상자들은 칸유니스의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GHF는 구호품이 별다른 사고 없이 전달됐으며 사상자 발생과 관련한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고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호대원들이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지역에 접근할 수가 없어 주민들이 수레로 부상자

서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발생한 부상자 발생 사실은 파악된 것이 없다”며 “이번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발포 사실 자체를 명시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스라엘군은 또 이날 별도 발표에서 “칸유니스 지역에서 작전 중인 7여단이 테러리스트 수백명을 제거하고 약 100개의 테러 인프라를 해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 유아 카시트 매장

연합뉴스

## 중국 인기검색어 1위는 ‘미국인 의존 톱10’

유모차 97%…우산·폭죽 비중 커

중국산 제품이 미국인들의 삶 곳곳에 깊숙이 침투해 있음을 보여주는 미국 매체 보도가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화제다.

2일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에서는 ‘미국인이 의존하는 중국제조 톱10 명단’이 인기 검색어 1위에 올랐다.

미중 간 무역전쟁 속에 미국인들이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을 소개한 지난 달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기사를 중국 온라인 뉴스사이트 국제재선이 재정리한 것이다.

NYT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 지난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미국 수입품 중 중국산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유모차(97%)인 것으로 집계됐다.

접이식부터 고급 다기능 모델까지 미국은 유모차 생산을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지했다.

인조 식물과 우산, 서류 캐비닛, 진공 플라스크(이상 96%)도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다.

폭죽도 95%에 달했는데, 중국 매체는 중국산 폭죽이 관세에 막혀 내년 미국의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

또 미국 시장의 장난감 70%, 가전제품 핵심 부품의 60%가 중국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화기(500억달러), 컴퓨터(355억달러), 배터리(170억달러), 장난감(135억달러) 등 순으로 많았다.

연합뉴스

## 영, 핵잠 12척·핵탄두 개발로 전쟁 준비태세

영국이 러시아 위협에 맞서기 위해 냉전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투자를 예고했다.

1일(현지시간) 영국 국방부에 따르면 키어스타머 영국 총리는 핵탄두 프로그램 개발 및 핵 추진 잠수함 12척 건조 등 방위산업에 15억 파운드(약 2조 8,000억원)를 투자하는 내용의 ‘전략적 방위 재검토’(Strategic Defence Review) 보고서를 2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보고서는 영국이 현재 처한 안보 위협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 구상 등을 담고 있다.

존 힐리 영국 국방 장관은 BBC 방송에 이번 에 나오는 보고서 속 구상이 영국의 군사 및 방위 산업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모스크바를 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보고서 핵심 내용에 따르면 영국은 15억 파운드를 신규 투입해 영국 전역에 최소 6개의 공군 기지를 신설하고, 국산 장거리 무기 7천대 가량을 신규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연합뉴스